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6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처럼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멀리까지 맑게 보이는 하늘은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도 맑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맑은 하늘을 늘 소중히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맑고 밝은 기운을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여 뜨겁게 살았던 사람, 우리도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자기의 길로 삼고 살아 지역과 사회를 바꾸며 살았던 사람, 우리도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와 참된 삶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 우리도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마28:20b 인도자

▲ 교 독 문 41. 시편 97편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박홍재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285.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함께

▲ 성경봉독 벧전 3:13-18 I. 인도자

II. 김 극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2부찬양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찬양대

주여 여기에 탄식하는 나 사랑으로써 위로하소서
내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 흘러내리네

주여 여기에 탄식하는 나 사랑으로써 위로하소서
 주여 여기에 탄식하는 나 사랑으로써 위로하소서
 아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사모하는 영원한 곳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여기에 탄식하는 나 사랑으로써 위로하소서
 내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 흘러내리네
 주여 여기에 탄식하는 나 사랑으로써 위로하소서

- 말 씬 흔들리지 마십시오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2부찬** 양 고학준 윤찬란
-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 봉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선한 일에 더욱 힘쓰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정의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깊은 탄식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고난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계속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나무는 아름답다. 수직으로 서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는 아름답다 못해 거의 성스럽기까지 하다. 나무는 서 있을 때에만 나무다. 나무가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대신 땅바닥에 누워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나무라는 이름대신 목재라고 부른다. ...

나무는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서 있도록, 서서 하늘을 향해 발돋움하며 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인지 모른다. 생명이 있는 한 잠조차도 서서 자야 하는 저 나무들의 직립의 숙명. 나무는 곳곳이 서 있을 때만 풍성한 잎사귀들을 무성하게 거느릴 수 있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훈장처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 또 그 무성한 이파리들을 늘어뜨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너그러움도 나무가 생명을 가지고 수직으로 서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직립해 있을 때 아름답다.

스위스의 조각가 자코메티의 말이다. 그는 인간을 수직성, 즉 하늘을 머리에 이고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직립의 존재로 이해했다. 푸르른 이파리를 자랑처럼 달고 똑바로 서 있는 보기 좋은 나무가 그런 것처럼.

그 나무의 생명이 하늘에서 은총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햇빛과 비에 의해 비롯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사실을 말하면, 생명을 가진 나무가 수직으로 서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만이 생명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 위에서, 하늘에서 부어지기 때문이다. ...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 온다. 야고보서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야1:17)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다.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은 수직으로 서서 하늘을 응시할 때 가장 인간답다. 하늘은 내려오고, 인간은 그 하늘을 껴안는다. ‘아가페’는 것처럼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형식에 대해 부여된 이름이다. 그것은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한다.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다. 아가페는 내려온다. 내려오기만 할 뿐이다. 무릇 좋은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햇빛이 그렇고, 비가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그리고 구원이 그러하다. 그래서 은총인 것이다. 우리가 수직으로 서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소설의 한 부분에 “절대자와의 비뚤어진 수직 관계를 방치하고 인간 사이의 평등한 관계만을 기획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라고 쓴 적이 있다. 수직으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뜻을 읽고 그것을 이 세상에 옮겨 적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

지금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기억이나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늘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만,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순간에만 하늘이다. 말을 바꾸면,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산을 오르며

- 도종환

산을 오르기 전에 공연한 자신감으로 들뜨지 않고
오르막길에서 가파른 숨 몰아쉬다 주저앉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자만의 켜 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평탄한 길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잠시 무거운 다리를 그루터기에 걸치고 쉴 때마다 계획하고
고갯마루에 올라서서는 걸어온 길 뒤돌아보며
두 갈래 길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나뭇가지 하나도 세심히 살펴 길 찾아가게 하소서

늘 같은 보폭으로 걷고 언제나 여유 잃지 않으며
등에 진 짐 무거우나 땀 흘리는 일 기쁨으로 받아들여
정상에 오르는 일에만 매여 있지 않고
오르는 길 굽이굽이 아름다운 것들 보고 느끼어

우리가 오른 봉우리도 많은 봉우리 중의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가장 높이 올라설수록 가장 외로운 바람과 만나게 되며
올라온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산 내려와서도 산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강요한 원은이 고숙이 구명자 구재원 국지연 김기성 이은정
 김애순 김정수 정자현 원은이 고숙이 구명자 구재원 국지연 김기성 이은정
 박기원 이미영 박시내 박옥순 박인혁 박준민 최광희 최광희 변재민 이소혜 서효진
 신승진 임성옥 심상숙 원용일 최현선 최윤수 진영덕 구성실 이부근
 이수자 이용석 이우엘 이지하 이현숙 이고임 이찬양 임찬양
 장승희 전영린 김행자 정두리 조관행 이홍선 이희미 최광희 최재욱
 한성건 정지혜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허호범 박성실 허호범 박성실

감사헌금

권정이 김재환 김진선 김지현 박상옥 임서영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박창운
 허정윤 방경선 손숙경 양경해 오미숙 이건오 김보민 이고임 이상도 이선화
 이시경 이은혜 임혜진 정서윤 정영례 정학성 김현숙 추은총 하현일 김광우
 한 준 한 민 허신열 황경순 무명14

생일감사헌금

김영희 최형주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안성호 김희숙 임설희 임승동 백혜숙 무명7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선교회	수요일 집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1. **웨슬리회심기념** : 오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27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3. **원로나들이** : 원로나들이를 이번 주 화요일(23일)에 갑니다. 장소는 강화도에 있는 콩세알(사회적 기업. 두부 만들기 및 장 담그기 현장체험)입니다.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4. **임원회** : 다음 주일 예배 후 2분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부서장들은 부서 활동 보고와 계획서를 주중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5. **신앙실천** : 존 웨슬리 목사는 빈민 구제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웨슬리를 기억하며 구제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시 89:11-18
-------------------	------------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하현철	서수진

1부 영접위원	안현숙	헌금위원	이부용
5월 2부 영접위원	하현철 김종락	한상균 박영신	정연희 한상경
2부 헌금위원	곽관희 박미영		

오늘 식당 봉사	이순정 오복순 정연경 정현주 안종일 홍윤선 최승주
다음주식당봉사	김금순 이은정 김애정 서수진 이해경 강신철 남명진 조성일
오늘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2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설규범